

## 입헌군주제하에서의 태국국왕의 카리스마와 정치적 역할: 푸미폰(Bhumibol Adulyadej) 국왕을 중심으로\*

김흥구

부산외국어대 태국어과 교수

본 연구는 현재 태국의 입헌군주인 푸미폰 국왕(Bhumibol Adulyadej)의 정치적 역할을 가능케 한 원인을 그가 갖고 있는 고유의 카리스마와의 관계속에서 분석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카리스마적 지도자는 개인적 자질(personal-quality factors)을 전제로 하여 환경적 요인(situational factors)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우선 푸미폰 국왕의 정치적 역할은 32년 혁명후 절대군주제의 전통적 정치체제가 붕괴되고 도입된 입헌군주제의 이성적, 법적 지배의 정통성이 취약한 정치적 환경요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가 정치적 역할을 시작했던 시기는 싸릿정권 때부터였다. 싸릿은 군사정권의 취약한 정통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국왕, 종교(불교), 국가”라는 3가지 개념으로 구성된 락타이(Lak Thai) 이데올로기를 지지하게 되었으며 국왕은 싸릿정권에게 정통성을 부여했다. 이후 국왕의 정치적 역할은 군사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의회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지지하기도 하는 모순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국왕의 모순된 정치적 역할은 왕실의 보존과 위상의 강화,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법에 따라 정의롭게 통치하는 담마라자가 되고자 하는 바람등의 두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푸미폰 국왕이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그가 갖는 카리스마적 자질이였다. 푸미폰 국왕의 카리스마적 자질요인은 법의 실행능력과 위기관리 능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같은 카리스마적 자질은 전통적인 태국국왕들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푸미폰 국왕은 이러한 자질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카리스마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푸미폰국왕의 카리스마는 락타이 이데올로기와 국왕개발계획을 통하여 일상화됨으로써 안정되고 강화되었다. 앞으로도 락타이 이데올로기와 국왕개발계획의 유용성을 고려한다면 국왕의 카리스마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나 정당과 의회중심의 정치체제가 더욱 제도화됨으로써 이성적, 법적지배의 정당성이 강화될수록 국왕의 정치적 역할의 효용성은 감소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더라도 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군부 주도의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의 흔적이 단기간내에 불식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치적 중재자로서의 국왕의 역할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 이 논문은 1996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해외 지역연구)에 의해 연구되었음.

## 1. 머리말

1932년 입헌혁명으로 절대군주제가 붕괴되고 입헌군주제의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도입된 이래 태국의 국왕은 국가원수로서 정치적인 실권없이 군림하나 지배하지는 않는 초정치적(above politics)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32년 혁명후 오늘날 까지도 국왕은 국가의 통합체계를 형성하는 중심축으로서 뿐만아니라 정치적 안정을 위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실상 입헌군주인 태국 국왕의 권한과 임무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현행 헌법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왕의 입법, 행정, 사법권의 행사를 보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권한은 국회, 내각, 법원의 동의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왕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정치참여가 금지되어있다. 국왕은 어느 한 정당이나 정치집단, 이익단체에 가입할 수 없고 하원의원에 대한 선거권도 없다. 따라서 국왕은 정치적 중립을 지킴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지지않아도 된다.

1932년 입헌군주제가 도입된 이래 태국에는 3명의 입헌군주가 즉위했으며 본격적으로 입헌군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국왕은 1946년 즉위하여 오늘날까지 재위하고 있는 라마 9세, 푸미폰 국왕(Rama IX, King Bhumibol Adulyadej)이다. 입헌군주인 푸미폰 국왕은 즉위후 정치참여가 금지되어 있는 법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태국에서 발생한 수많은 정치적 위기시 정치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32년이래 오늘날까지 태국에는 총 17차례의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으며 푸미폰 국왕 즉위후 14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했다. 그리고 국왕의 승인 여부는 쿠데타 성공의 주요 변수가 되었다. 또한 국왕의 정치적 역할은 태국 정치의 오랜 특징이었던 군과 관료중심의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지배했던 시기뿐만아니라 80년대 이후 의회중심의 다원적 민주주의로 점진적으로 전환되는 시기에도 여전히 유용했다. 국왕은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정통성을 부여하기도 했으며 한편으로는 의회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지지하면서 정치적 안정에 기여했다.

이런 맥락에서 태국 국왕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연구는 현대 태국정치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 연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태국내·외에서 태국국왕의 정치적 역할을 다룬 본격적인 연구업적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연구의 주제 또한 주로 국왕의 국가통합역할등에 한정되어 있다. 태국의 경우 국왕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인데 그 주요한 이유는 이 연구의 주제가 갖는 정치적 민감성에서 찾을 수 있다. 태국헌법에는 국왕에 대한 모독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1991년 헌법 2장 6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인 제약이 연구부진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외국학자들에 의한 연구의 부진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국왕 모독죄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고 있으며 국왕을 비난하는 내용의 출판물들은 판매금지 조

치를 당하기도 한다. 더욱이 1932년 입헌군주제 도입후 오늘날의 푸미폰국왕이 52년간이나 통치함으로써 태국의 입헌군주제를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으나 현존인물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도 이 분야의 연구를 부진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Hewison, 1997: 266).

이 글은 입헌군주인 푸미폰 국왕의 정치적 역할을 가능케 했던 원인을 그가 갖고 있는 고유의 카리스마와의 관계속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II.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카리스마와 정치적 역할의 관계는 근대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출현배경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출현배경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일은 카리스마적 지배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이다. 일반적 리더십의 특성과 같이 카리스마적 지도자도 지도자와 추종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카리스마적 지도자와 추종자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베버(Max Weber)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카리스마(charisma)라는 용어는 그 자질이 실제적이던 가정적이던 간에 한 인간의 비범한 자질(extraordinary quality)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카리스마적 권위(charismatic authority)는 인간에 대한 지배를 의미하게 되는데 ... 피지배자는 특정한 개인의 비범한 자질에 대한 믿음에 기인하여 복종하게 된다... 카리스마적 지배의 정당성은... 신성, 계시, 영웅숭배의 믿음에 기초한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근거는 기적, 승리나 다른 성공요소들 예를 들면 피지배자의 복지를 돌봄으로써 그 자질을 증명하는 데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의 믿음과 권위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카리스마적으로 자질화된 인간의 신비한 힘이 결핍되거나 신에게 버림받을 때 사라지게 된다. 카리스마적 지배는 전통적이거나 이성적인 일반적 규범에 따라 운용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계시와 영감에 따라서 운용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카리스마적 권위는 비이성적이다...” (Girth and Mills, 1947: 295-96).

위에서 언급한 대로 카리스마적 지배는 지도자의 비범한 자질을 전제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자질에 대한 피지배자의 믿음이 있을 때 그 정당성이 확보되는 관계적 특성(relational properties)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카리스마의 개인적 자질은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출현케 만드는 필요조건(necessary conditions)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조건은 근대화 사회의 정치, 사회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출현은 일반적으로 전통적 권위(traditional authority)나 이성적, 법적 권위(rational-legal authority)가 정통성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 포스트 식민지국가(postcolonial states)의 정치변

동과정에서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툴리스(Tullis, 1973: 82)는 현대사회에서의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출현조건들은 근대화와 관련된 급속한 환경적 변화(산업화, 도시화, 문자해독률과 커뮤니케이션의 증가 등)와 그들을 동반하거나 선행하거나 또는 그들에 종속되는 가치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회적 동원화가 증가할수록 그 과정은 구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제약을 약화시킨다. 그리고 전통적 권위는 그 도전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농민, 노동자, 학생, 중산층들은 제 몫을 찾게 되고 기대가 급속히 상승된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는 이와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다. 그 결과 그들은 심리적 일탈현상이 발생하고 좌절하며 분노하고 때때로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된다. 전통적 권위는 이를 충족시켜줄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대적인 이성적, 법적 권위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하며 그것은 아직까지 미개발 상태에 있다. 그 결과 발생하는 현실적 괴리(gap)로 인하여 구세주(prophet)에 대한 기대심리가 생기고 그 구세주가 약속의 땅(promised land)으로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심리가 생겨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통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출현배경에 관한 설명은 러스토우(Rustow, 1967: 157)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정리되고 있다. 그는 베버의 지배의 정당성에 관한 가설을 이용하여 정치적 정통성<sup>1)</sup>을 전통적 정통성, 이성적, 법적 정통성과 카리스마적 정통성의 합계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으며 정치적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정통성이 쇠퇴했을 때 나머지 2개나 한개의 정통성의 증가에 의해서 보상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개인적 자질의 증거와 타당성에 기초를 둔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의한 지배는 정당성은 있으나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상화(routinization)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카리스마의 일상화는 구조화된 조직(structured institutions)-정당적 조직체나 관료체제-을 만들거나 공식화된 이데올로기(a formalized ideology)를 확립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Rustow, 1967: 168).

그러나 개인적 자질의 증거와 타당성에 기초를 둔 순수형의 카리스마적 지배는 일상적 구조들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것이 순전히 과도기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영속적인 관계의 성격을 띠고자 한다면 카리스마적 지배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사실상 순수형의 카리스마적 지배는 이념형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1) 정치적 정통성은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를 의미한다. 베버는 정통성을 주장할 타당한 근거로 합리적 근거, 전통적 근거, 카리스마적 근거를 제시했다. 합리적 근거는 입법화된 법규와 그 법규하에서 명령을 내릴 권위를 갖게 된 자들의 권리의 합법성에 대한 믿음에 근거를 둔다. 전통적 근거는 오래된 전통의 존엄성과 그 전통에 의거하여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의 정당성에 대한 기존의 믿음에 근거를 둔다. 카리스마적 근거는 한 개인 그리고 이 개인이 제시하거나 제정한 규범적 유형 혹은 질서의 비상한 신성함과 영웅성, 모범성에의 헌신에 근거를 둔다 (Eisenstadt, 1968: 46).

것은 안정되어 있지 못하며 전통적 지배로 변화하거나 합리적 지배로 변화하거나 혹은 그 양자를 결합한 형태로 변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isenstadt, 1968: 54).

위에서 언급한대로 카리스마적 지배가 일상화된다고 해서 반드시 카리스마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일상화된으로써 안정성을 갖게 되는 카리스마는 승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승계의 위기는 카리스마의 안정성을 해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카리스마적 인물이 죽거나 카리스마를 상실했을 때 누가 그를 계승할 것인가? 기존의 확립된 승계의 원칙이 없을 때는 누가 결정할 것인가? 잠재적인 계승자사이의 불가피한 투쟁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서 위기가 야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심각한 사회적 불안정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승계의 위기는 몇가지 해결방식-새로운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찾는 방법, 신탁 등으로 나타나는 계시의 방법,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후계자를 지명하는 방법, 카리스마적 자격을 갖춘 행정 간부진이 후계자를 지명하고 공동체가 인정하는 방법, 세습에 의해 전수되는 방법, 의식의 수단을 통하여 전수되는 방법-에 의해 극복되어야 한다 (Eisenstadt, 1968: 55-56).

또한 카리스마의 위기는 추종자에 대한 보상(payoff)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출현에 기여하는 현실적인 괴리는 영구히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지도자가 추종자에 대한 보상에 성공한다면 그는 그 괴리를 메움으로써 카리스마를 만들어 내는 환경요인을 없애 버리는 셈이 되며 추종자들은 이성적, 법적이며 예측 가능한 제도화된 권위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지도자가 추종자에 대한 보상에 실패한다면 그는 물론 카리스마를 상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염두에 두면서 이 글은 일관성있는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략적인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카리스마적 지도자는 개인적 자질(personal-quality factors)을 전제로 하여 환경적 요인(situational factors)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정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카리스마는 한 인간의 비범한 자질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 자질은 지도자와 추종자간의 상호관계-지도자의 추종자에 대한 보상, 피지배자에 대한 복지후원-속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정치적 역할은 전통적 권위의 정통성이 감소되고 이성적, 법적 정통성이 취약한 정치체제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둘째, 카리스마적 지배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러한 불안정은 일상화나 승계의 위기와 관련하여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카리스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영속적인 기구, 조직, 이데올로기의 제도화를 통하여 카리스마를 일상화시켜야 하며 승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식의 선택이 필요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카리스마적 지배는 숙명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카리스마적 지배를 형성케하는 환

경적 요인의 제거에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 성격은 변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틀을 바탕으로 3장에서는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푸미폰 국왕의 카리스마적 자질요인을 분석하고 4장에서는 구체적인 정치과정속에서 국왕이 카리스마를 통하여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치환경적요인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분석할 것이다. 또한 분석틀에서 제기된 카리스마의 일상화와 관련해서는 3, 4장의 내용전개에 따라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요약과 승계문제의 전망을 다루게 될 것이다.

### III. 카리스마적 자질요인

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이상적인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로 인식했던 것은 법(法, dhamma)의 실행능력이었으며 이러한 자질을 갖춘 통치자를 담마라자(Dhammaraja)라고 불렀다. 따라서 전통적인 태국국왕들은 담마라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국민들은 이러한 자질을 갖춘 국왕들의 지배를 정당한 것으로 믿어 왔다.

또한 태국인들은 국왕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믿음이 컸다. 위기관리 능력은 역대 성공적인 태국국왕들이 통치자로서 갖춘 또 하나의 비범한 자질이였다. 태국은 다른 동남아 국가와는 달리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서구열강의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적이 없었으며 태국의 개명군주들은 외교적 능력에 의존하여 영·불의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 국가의 독립을 수호했을 뿐아니라 근대화를 성공시켜 국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푸미폰 국왕은 위에서 언급한 역대국왕들이 가졌던 법의 실행능력, 위기관리능력이라는 비범한 자질을 계승, 발전시키고 그것을 국민들(추종자)에게 증명해 보임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카리스마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1. 법(dhamma)의 실행능력

13세기중엽 오늘날의 태국땅에 세워진 쑤코타이왕국(Sukhothai: 1238-1438년) 초기의 통치형태는 가정을 기본적인 통치단위로 삼는 것이었다. 이같은 통치체제에서 국왕은 아버지와 같은 지배자(fatherly ruler)로서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다스리는 것과 같이 국가를 통치하게 되었으며 백성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정치를 가장 중요시하게 되었다. 국왕은 백성들의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의 영위를 위해서 백성들과 항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행, 불행을 돌보아 주었다. 국왕은 백성들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왕궁 앞에 큰 종을 매달아 놓고 백성들이 불만이 있을때 그 종을 치게 하였으며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었다. 이같이 국왕은 백성들이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accessible) 존재였기 때문에 그 호칭도 퍼쿤(Phaw Khun)<sup>2)</sup>이라 불리게 되었다. 가장장적인 왕(paternal king)의 통치하에서 국민들은 평화와 번영을 누렸

고 국가는 발전했다. 따라서 오늘날의 태국국민들은 쑤코타이를 “부러움을 느낄정도의 만족(envious contentment)”을 누린 국가로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쑤코타이왕국 초기의 소위 가부장적인 왕들은 3대왕인 람캄행왕이후 태국에 불교가 도입된 이래에 불교의 교리인 법(dhamma)을 중요한 통치수단으로 삼게 되었다. 따라서 가부장적인 왕들은 동시에 법을 실행하는 왕(rajā)인 담마라자(Dhammaraja)가 되어야 했다.

태국의 고대법전인 프라탐마삿(Phra Thammasat)에 따르면 담마라자는 시법(十法, Thosapitrajadhamma)을 준수할 때만이 왕으로서의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시법은 왕이 이상적으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통치덕목을 언급한 것으로 보시(布施, dana), 지계(持戒, sila), 희생(pariccaga), 공정(ajjava), 온화(madd-ava), 노력(tapo), 불노(不怒, akkodha), 불해(不害, avihimsa), 인내(khanti), 불역(不逆, aviro-dhana) 등을 내용으로 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법에 따라 정의롭게 통치하는 왕을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여기고 그를 담마라자라고 불렀다. 담마라자는 법을 준수함으로써 통치의 정당성을 갖게 되며 법을 거슬러서 불법을 저지르는 왕은 통치의 정당성을 상실하며 이러한 왕의 통치권을 거부하는 일은 정당화되기도 했다 (Ishii, 1986: 45-46).

따라서 쑤코타이왕국이래 역대 태국의 국왕들은 다양한 방법-사원건축, 토지하사, 노동력 제공, 우기가 끝난후에 승려들에게 가사(袈裟)를 전달하는 의식(Kathin Ceremony)-으로 승가를 후원함으로써 법의 실행노력을 보이게 되었으며 시법에 의한 통치를 통하여 국민들로 부터 담마라자로서의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담마라자의 왕권은 쑤코타이이래 오늘날까지 태국 국왕들이 통치자의 이상적인 유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며 담마라자는 아버지와 같은 자비로움(paternal benevolence)을 보이고 국민들과의 친밀한 관계(accessibility)를 유지하는 가부장적인 왕권의 성격을 내포하게 되었다.

쑤코타이왕국이후 아유타야왕국(Ayuthaya: 1350-1767년)때 역시 불교의 영향력은 지속되었으나 담마라자왕권의 유형과 더불어 왕의 신성이 강조되는 데바라자(Devaraja)라는 새로운 왕권의 개념이 출현했다. 원래 아유타야는 힌두원류의 크메르문명과 브라마니즘(brahmanism)의 영향을 강력히 받는 인도화된 국가(indianized state)로서 왕은 신성을 부여받는 데바라자가 되었다. 왕은 시바(Siva)나 비시누(Visnu)와 같은 판테온(Pantheon)의 신중 한 신의 세속적 화신이었으며 생명의 주인, 영토의 주인으로서 절대적 통치권을 행사한 절대군주였다. 따라서 왕은 신과 같은 경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왕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으며(Girling, 1981: 22) 국왕과 백성과의 관계도 더이상 사

2) 퍼쿰(Phaw Khun)은 퍼(아버지)와 쿤(성주)의 복합어로서 성주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호칭은 주로 쑤코타이의 1대왕부터 3대왕까지 사용되었다. 쑤코타이는 가정을 중심으로 통치단위가 형성되었다. 가정이 모여서 촌락을 이루고 촌락이 모여서 도시와 성을 이루게 되었으며 성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게 되었고 국가의 지배자를 성주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같은 아유타야왕국의 데바라자의 왕권개념은 담마라자의 왕권과 병존하면서 발전했다. 웨일즈(Wales, 1965: 16-17)는 아유타야의 왕권을 신왕(神王)과 미래불(未來佛, bodhisatta)로서의 왕권 개념이 혼합된 것으로 보기도 했다. 아유타야왕국의 절대군주들은 불교도로서 쑤코타이왕국의 왕들과 같이 불교를 그들의 통치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게 되었으며 브라마니즘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여전히 아유타야 사회의 국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데바라자의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왕권은 담마라자의 왕권에 의해서 견제를 받게 되었다. 아유타야왕국 전시대를 통하여 절대군주인 데바라자는 법을 실행하는 담마라자가 되어야 했다. 또한 시범의 준수정도에 따라 왕의 정당성의 평가가 달라지게 되었다. 아유타야의 몇 명의 왕들은 반란으로 인하여 폐위되거나 처형당했는데 반란 정당화의 이유는 왕들이 법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Xuto, 1987: 11).

데바라자의 왕권은 랏타나꼬썬왕국(Rattanakosin: 1782년-현재)의 라마 4세와 5세의 통치기에 접어들어서 쇠퇴하기 시작했고 왕권은 다분히 담마라자적이며 가부장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기 시작했다. 왕위에 오르기전 오랫동안 승려생활을 하기도 한 라마 4세(1851-1868년)는 태국의 전통불교 개혁운동인 탐마윛(Thammayut)운동을 주도하여 아유타야시대 이래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브라만사제들의 의식으로 특징지어졌던 신성한 왕권의 이미지를 불교사원의 주요한 인간적 보호자의 이미지로 바꿔놓게 되었으며(Tambiah, 1976: 226) 쑤코타이왕국 람캄행왕의 전례를 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을 위해서 왕실 앞에 큰 북을 달아놓기도 했다. 또한 그는 국왕의 행차시 대문이나 창문을 닫게 하거나, 왕이나 왕족을 쳐다보는 것을 금지시켰던 구관습을 폐지하여 백성들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는 왕이 되고자 했다.

그의 뒤를 이은 라마 5세 쥘라롱콘왕(Chulalongkorn:1868-1910년) 역시 라마 4세와 같이 백성들을 위해서 법을 실행하고 백성과 가까운 왕이 되고자 노력했다. 그는 소위 짝끄리개혁(Chakri Revolution)이라고 불리우는 태국의 근대화를 주도하여 노예제와 프라이제(phrai, 평민으로서 노역의 의무를 가진)를 폐지했을 뿐아니라 민정시찰을 통하여 국민들의 생활상을 직접 파악하고 복지향상을 개선시키기 위한 실로 수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근대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그는 전통적인 태국국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의 이러한 업적은 공공건설과 교육분야의 근대화를 통하여 잘 나타나고 있다. 그는 수많은 운하를 건설하고 근대식 도로를 만들었으며 철도건설, 인쇄기 도입, 관보 발행, 전보와 우편제도 도입, 전화 개설, 전기 발전소 건설, 관개시설 건축, 왕립병원, 왕궁학교, 쑤언쿨랍(Suan Kulab)왕실 시중학교, 국립학교, 교육국, 군사대학, 해군대학, 사법학교, 쥘라롱콘대학을 설립하는 등 눈부신 업적을 남겼다 (Syamananda, 1973: 128-129).

이상과 같은 태국의 전통적인 국왕들의 담마라자로서의 비범한 자질은 국민들에게 통치자의 지배의 정당성을 확인시켰다. 오늘날 태국의 헌법에서는 국왕은 불교도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여전히 현대 태국에서의 담마라자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푸미폰 국왕은 역대 왕들과 같이 법의 실행을 통하여 담마라자가 되고자 노력함으로써 카리스마를 갖게 되었다.

1950년에 푸미폰 국왕은 대관식에서 “모든 태국국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법에 따라 통치할 것” 입을 선언한 이래 재위기간중 불교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우선 그는 법의 가르침을 충실히 수행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역사상 모든 담마라자가 행했던 관례에 따라 단기간의 출가경험을 갖게 된다. 1956년 그는 왕실사원에서 대승정의 주재아래 수계식을 거행하고 푸미파로라는 법명을 받았다. 이어서 그는 56년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약 2주간 버워니웻(Boworniwet)사원에서 단기간 승려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 기간 중 그는 탁발의식을 행하고 엄격한 계율의 수도생활을 함으로써 법을 실행하는 담마라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Amphraiwan, 1994: 31).

이후 푸미폰 국왕은 불교도로서 또한 모든 종교의 수호자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며 국가통합의 구심점이 되었다. 국왕은 많은 불교행사에 참여하여 행사를 주재하고 공덕을 쌓음으로써 법을 실행하는 담마라자로서의 정당성을 확인받았다. 국왕은 가사(袈裟)전달식(Kathin Ceremony)을 비롯하여 마카부차, 아싼하부차, 위짜카부차, 카오판싸행사와, 큰 사원에서 행해지는 욱처파행사, 팡룩니밋행사, 칸테팅프라쁘라탄행사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원의 신, 개축을 통하여 공덕을 쌓고 법을 실행하게 된다.<sup>3)</sup>

그러나 무엇보다도 푸미폰국왕의 담마라자로서의 자질은 국왕개발계획을 통하여 잘 나타나고 있다. 그는 이 계획을 통하여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태국국민들이 전통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왕권으로서 인식했던 가부장적이고 담마라자적인 왕권의 정당성을 입증해 보임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카리스마를 갖게 되었다. 국왕개발계획은 라마 5세가 근대화를 통하여 태국국민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줌으로써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던 것과 비교되곤 한다. 따라서 라마 5세와 라마 9세는 랏따나꼬씬의 왕들 중 두 명의 대왕으로 태국인의 추앙을 받고 있다. 라마 9세는 1986년 12월 5일 60회 생일에 대왕(Somdej Phra Bhumibol Adulyadej Maharaj)으로 추대됨으로써 입헌군주로서는 최초의 대왕이 되었다.

푸미폰 국왕이 즉위후 가장 역점을 두었던 입헌군주로서의 활동은 지방의 국민들과

3) 마카부차는 음력 3월 15일 万佛節날이며, 위짜카부차는 음력 6월 15일의 佛誕節, 아싼하부차는 음력 8월 15일 初轉法輪日, 카오판싸는 雨安居행사가 치루어지는 날이다. 욱처파행사는 사원의 지붕위에 무늬를 새긴 나무를 엮쳐 놓는 행사, 팡룩니밋행사는 사원에서 성스러운 지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땅속에 둥근돌을 박는 행사, 칸테팅프라쁘라탄행사는 불상에 금옷을 입히는 행사이다 (Amphraiwan, 1994: 59-61).

의 직접적인 접촉이었다. 국왕의 지방여행은 1955년경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의 최초의 방문지는 태국에서 사회, 경제적인 상태가 가장 열악한 동북부지방이었다. 국왕의 동북부방문은 이후 그의 지방방문의 모델이 되었으며 북부, 남부, 서부의 다른 지역까지 방문의 기회를 확대했다. 오늘날 푸미폰 국왕과 왕실가족들은 방콕외 지역에 세워져 있는 4곳의 왕궁-북부 치앙마이, 동북부의 싸컨나컨, 타이만이 위치한 중부의 후어헌, 남부의 나라티왓-에 거주하면서 일년의 절반이상 지방을 방문하고 있다.

지방 방문을 통하여 국왕은 국민들의 행과 불행에 대해서 직접 귀를 기울임으로써 쑤코타이의 자비로운 아버지와 같은 왕의 면모를 과시하고 법을 실천하는 담마라자가 되고자 하는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구체적으로 국왕개발계획(Royal Development Project)의 실시를 통해 나타났다. 국왕개발계획에서 주요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농민들이었으며 국왕은 도시와 비교해 생활수준이 열악한 농촌지방의 삶의 개선에 기여하게 되었다. 국왕개발계획은 국민들의 실제적 요구에 부응하고 정부재원이 부족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으며 국왕이 주도함으로써 정부 관료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을 뿐아니라 정부 부처간의 알력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계획이었다.

푸미폰 국왕은 시범에 나타나는 보시, 자기희생, 노력, 인내 등의 덕목에 입각하여 국민들의 이익과 행복<sup>4)</sup>을 위하여 국왕개발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왕, 태국 역사상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국왕이 되었다.

국왕이 주도하는 경제, 사회개발계획은 태국의 총 56개 도, 4000개 부락에서 1300개 이상의 계획이 추진중이다. 이 계획은 4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국왕이 사비를 투자하여 연구실험하는 국왕이 희망하는 계획(Khronkkaan Taam Phraraatchaprasong), 고산족 개발계획인 국왕계획(Khronkkaan Luang), 국왕이 자문을 하고 민간에서 자본 및 인력을 제공하는 국왕후원계획(Khronkkaan Nai Phraborommaraachaanukhro), 국왕과 정부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국왕주도계획(Khronkkaan Taam Phraraatchadamri). 또한 이 계획들은 내용에 따라 수자원 및 관개개발, 토지개발, 농업개발, 연구개발, 보건위생, 교육개발 등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중요한 몇 가지 계획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sup>5)</sup>

수자원 및 관개개발계획은 농산물재배와 식수용 수자원 개발계획, 소규모 저수지개발 계획, 전력생산을 위한 수원개발계획, 배수계획, 홍수조절계획 등이 있다. 토지개발계획은 흙까뽕, 더이 쿤 후어이, 닝 프랍, 통 루이라이, 까루워, 뿌라나부리협동조합, 왕실재산

4) 푸미폰 국왕은 한 공식적인 어록에서 다음과 같은 국왕관을 표명한 적이 있다. “국왕들은 얼마나 정의롭게 그리고 ...국민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통치하는가에 따라 부침했다”(Hewison, 1997: 60).

5) 국왕개발계획에 관해서는 (Amphraiwan, 1994: 37-59), (Srihong, 1988: 153-354), (Thailand Business vol. 11, no. 9-10, July-August 1988: 27-40)을 참조.

국의 토지개혁계획 등을 들 수 있다.

농업개발계획중 대표적인 것은 1961년과 1969년 찻뜨라라다궁(Chitralada)내에 낙농장과 우유생산 공장설립, 1971년 인공강우연구, 개발계획(Artificial Rain-making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과 1979년의 물소은행 계획(Buffalo Bank Projects)이 있으며, 왕궁에는 대형 양어장(fish farming)을 건설하여 1965년 일본으로 부터 수입된 조기 양육할 수 있는 물고기(Pla Moh Thet과 Pla Nil)등을 실험양육한 후 전국의 농민들에게도 기르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1961년부터 다양한 토양환경에 적합한 쌀경작을 할 수 있도록 쌀경작계획(Chitralada Farm's Rice Cultivation Project)이 추진되었다.

또한 국왕은 태국 북부 고산족들의 복지개발을 위해서 1969년 국왕 고산족계획(Royal Hill Tribe Project)을 실시하였다. 이 계획은 현재는 국왕계획(Royal Project)이라고 명명되고 있다. 이 계획의 성공으로 고산족들은 국왕을 “(자비로운)아버지 같은 국왕”(Phaw Luang)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1988년 이 계획은 막사이사이(Magsaysay)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국왕은 동북부지방의 녹색혁명으로 일컬어지는 푸른 이산계획(E-san Khiew Projects)도 추진했는데 이 계획은 일명 국왕의 은혜계획(Khrongkaan Namphrathai chak Nailuang)이라고 명명되고 있다.

연구개발계획을 위하여 후어이형크라이(Huay Hong Khrai), 푸판(Bhupan), 카오헌선(Khao Hin Sorn), 아우 쿡끄라벤(Ao Khung Kraben), 후위이싸이(Huay Sai), 피꾼텅(Phikunthong)개발 연구소 등 6개의 연구소를 설립했다. 보건 위생계획에 따라서 국왕은 1967년 왕실의료단(Royal Medical Unit)을 최초로 설립한 이래, 이동왕실의료계획, 특별의료계획, 이동왕실치과의료단계획, 외과의사 자원봉사단 계획, 이빈후과 및 풍토병치료를 위한 의료단계획, 촌락단위 기초의료담당자 육성계획, 왕비비서실소속의 환자보호계획 등을 추진했다.

또한 국왕은 교육개발을 위하여 1955년 아난타 마히돈 (Anand Mahidol)장학재단 설립, 1963년 라차 프라 아누크리(Raja Prajanugroh)재단 설립, 왕실자제들의 교육을 위한 찻뜨라라다학교 설립, 1978년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사원학교 설립, 전국에 소규모 도서관 짜라 루엄짜이(Sala Ruam Jai)설립, 고산족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짜오 퍼 루엡 우빠담학교(Chao Phaw Luang Upatham)-설립, 1975년 프라다봇(Phra Dabos)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하고 1969년에는 청소년 사전편찬계획(Thai Junior Encyclopaedia Project)을 발표했다.

## 2. 위기관리능력

국가위기시의 성공적 위기관리능력을 통하여 태국국왕들의 영웅적인 비범한 카리스마적 자질을 볼 수 있다. 특히 태국국민들은 랏따나꼬씬왕국의 선대왕들이 보였던 탁월

한 위기관리능력을 깊이 존경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존경심은 왕실에 대한 신뢰로 연결 될 뿐아니라 푸미폰국왕의 카리스마를 강화시켜 주는 중요한 역사적 자산이 되었다.

랏따나꼬썬왕국의 선대왕들인 라마 4세와 5세는 탁월한 위기관리능력을 발휘했다. 19세기 중반 동남아에서 서구열강의 식민지 각축전이 치열했을 때 다른 동남아국가들이 모두 서구열강의 식민지 지배에 놓이게 되었으나 태국은 라마 4세와 5세의 성공적 외교정책을 통하여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태국이 영국의 전면적인 통상개방요구에 의해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라마 4세는 영국과 1855년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보우링(Bowring)조약이라고 불리는데 그 내용은 치외법권원칙, 수입관세율의 일률적 3%제한을 규정하여 중국이 아편전쟁 이후 서구열강과 맺은 조약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서 태국으로서는 법적, 경제적 자율성을 상실하게 되는 지극히 불리한 조약이었다. 그러나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라마 4세는 강대한 서구열강과의 관계 특히 영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러한 라마 4세의 외교는 강대한 국가로부터의 압력에 직면하여 약한 태국 국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에 근거한 정책이라고 그 지혜로움을 높이 평가받았다 (Nuechterlein, 1965: 14).

라마 5세는 서구열강의 침투가 국가안정과 왕권에 큰 저해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외적으로는 독립국가의 유지를 제 1의 정책목표로 삼고 대내적으로 소위 짝끄리대개혁을 통하여 근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독립국가유지를 위한 외교정책은 1893년 프랑스와의 불평등조약을 통하여 영토할양정책<sup>6)</sup>을 단행한후 1896년 영·불양국 협정에 의거 태국이 양국의 완충지역으로 남아 국가의 자치권을 보장받음으로써 성공했다. 이러한 외교정책의 성공은 불확실한 대외관계로 위축된 국내투자를 증가시켜 1894-1904년사이 태국의 무역량을 2배이상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아 역설적으로 서구열강과의 접촉은 태국의 경제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라마 5세로 하여금 외세에 대항하여 왕권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게 되었다 (Girling, 1981: 49).

대내적으로 라마 5세는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사실상 태국의 근대화는 라마 4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당시 정치상황은 개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부의 추진력을 허용치 않음으로써 극히 제한적인 개혁만이 가능했다. 라마 5세의 근대화작업은 1873년 2차 대관식이 거행된 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는데 그는 공식 대관식을 마치면서 국가위원회와 추밀원을 창설하고 노예제폐지, 재무개혁, 사법절차개선 등의 광범한 개혁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그는 행정대개혁을 단행하여 1892년 중앙행정조직을 별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12개의

6) 1893년 태국은 프랑스와의 조약에 따라 메콩강(Mekhong) 이동지역의 영토를 포기하고 1907년에는 캄보디아 서쪽지역을 다시 프랑스에게 양도했으며 1909년 영국에게 말레이반도 4개주를 양도했다.

부서로 개편했으며 지방행정조직도 중앙행정조직에 종속토록 개편함으로써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식 통치체제를 강화할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랏따나꼬씬왕국의 역대 국왕들이 가졌던 위기관리능력의 자질은 푸미폰 국왕에게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푸미폰 국왕의 위기관리능력은 즉위후 발생했던 수많은 정치적 위기시의 역할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가 즉위한 1946년 이후 태국에는 8차례의 성공한 쿠데타-47년 11월 8일, 51년 11월 29일, 57년 9월 16일, 58년 10월 20일, 71년 11월 17일, 76년 10월 6일, 77년 10월 20일, 91년 2월 23일-가 발생했으며 불발쿠데타도 6차례-48년 10월 1일, 49년 2월 26일, 51년 6월 29일, 77년 3월 26일, 81년 4월 1일, 85년 9월 9일-나 발생함으로써 총 14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했다. 빈번한 쿠데타로 태국의 민주주의 정치과정은 제도화되지 못하고 정치적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소위 이성적, 법적 지배의 정당성의 지배원리가 위기에 직면했을때 국왕은 카리스마를 통하여 취약한 정권의 정통성을 보강해 줌으로써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태국에서 발생한 수많은 쿠데타가 최소한의 유혈사태로 그칠 수 있었던 데는 불교 정치문화와 더불어 국왕의 역할이 컸다.

푸미폰 국왕의 위기관리능력은 1973년 10월 14일사태, 1980년대 신클렝정권(Prem Tinsulanon)이 직면하게 되는 몇 차례의 위기때나 1992년 5월 사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10월 14일 사태시 국왕은 타넘(Thanom Kittikhachon)의 망명을 허락하고 국민들의 시위자재를 요구함으로써 사태의 악화를 방지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후 썬야(Sanya Thammasak) 과도내각을 출범시키고 민주헌법을 공포케함으로써 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73년부터 76년까지 좌, 우파간 대립으로 사회가 혼란스럽고 정치세력들의 폭발적인 민주화 요구로 정치적 불안정이 극심했을 때 정치적 혼란을 주도적으로 수습했다.

오늘날 태국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했던 신클렝정권은 두 차례의 쿠데타-1981, 1985년-를 겪게 되었으며 1984년에는 태국화폐 바트화(baht)평가절하정책을 추진코자 했으나 군부의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국왕은 두 차례의 쿠데타를 인정치 않았으며 정부의 화폐정책에 대한 군부의 도전을 물리침으로써 신클렝정부의 안정과 지속적인 민주화에 기여했다. 이러한 국왕의 역할로 태국은 70년대 중반 이후 국왕이 즉위했던 46년이래 그 어떤 시기보다도 오랫동안 의회체제가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정당활동이 활성화되었다.

뿐만아니라 국왕은 1992년 5월 사태당시 발포책임자인 쑤찐다 (Suchinda Khraprayoon)수상을 사면후 퇴임시킴으로써 쑤찐다정권에 항거했던 시위대와의 타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아난(Anad Panyarachoon)과도내각을 출범시켜 민주헌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오늘날 태국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국가방위와 관련하여 군 최고 통수권자인 푸미폰 국왕은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태국의 독립을 유지시켰다. 1970년대 중반 인접한 인도차이나 3국이 모두 공산화되었을 때 태국은 푸미폰 국왕을 중심으로 공산화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당시에 그는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의 심각성을 주지시켰다.

또한 그는 태국에 공산주의자들이 준동하던 시기에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의 침투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병사와 주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생활필수품을 하사했으며 부상자들을 위해서는 의료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부상자 가족을 돌보아 주고 부상자들을 위해서 자활 직업교육을 주선해 주기도 했으며 사망자들의 장례식에 국왕은 왕실가족과 함께 참가해 장례식을 주관함으로써 국가 방위에 관한 관심을 보여 주었다 (Amphraiwan, 1994: 65).

뿐만아니라 전쟁시 그는 자상한 전문적인 군사적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공산주의자들과의 전쟁에서 병사들의 희생을 우려하여 건쉽(gunship) 헬리콥터 사용의 유용성을 조언하고 M16 사용개선방안에 대해서 세세히 조언을 하기까지도 했다.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이 사라진 후에도 국왕의 국가방위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는 3군사관학교와 경찰학교 졸업식에 참가하여 예식도(禮式刀)와 졸업장을 수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Amphraiwan, 1994: 66).

위에서 언급한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국왕의 국가방위에 대한 관심들은 다분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 하겠다. 그러나 카리스마란 이성적인 일반적 규범에 의해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관심에 대한 국민들의 비이성적 반응은 국왕의 카리스마를 제고시키는 데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 IV. 푸미폰 국왕의 정치적 역할

태국에는 1932년 입헌혁명이 발생하여 전통적 정치체제인 절대군주제가 붕괴되고 입헌군주제가 도입되었다. 32년 혁명은 군과 중간계급 민간관료들로 구성된 카나랏싸던(Khanaratsadorn, Peoples' Party, 인민당)이 주도했다. 이후 1973년 10월 14일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40년동안의 태국의 정치체제는 리스(Riggs, 1966)가 언급한 관료지배체제(bureaucratic polity)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태국의 관료지배체제는 군부가 민간관료체제를 지배하고 정치에 개입하게 됨으로써 이 기간중의 태국의 정치체제는 집정주의적 정치체제(praetorian political system)로 특징지을 수 있다.

관료지배체제 또는 집정주의적 정치체제하에서 정당과 의회들은 제도화되지 못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태국에서 근대적인 관료체제가 형성된 것은 랏따나꼬씬왕국 5대왕인 쾄라롱견왕때 부터였다. 그리고 1932년 입헌혁명이 발생하기전 태국사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영속성을 유지하고 유일하게 제도화되어 있었던 조직은 왕실을 제외하면 관료체제뿐이었다. 당시 민간정치조직인 정당과 의회는 부재한 상태였다. 따라서 태국의

관료체제는 32년 혁명후 왕권의 공백을 메꿀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 되었으며 관료체제의 특징은 군이 민간관료를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군의 의회와 내각에 대한 압도적 지배현상에서 잘 나타난다 (김홍구, 1996b: 44-46).

한편 태국의 의회는 32년 혁명후 생겨났으나 이후 잦은 쿠데타로 인한 의회활동의 단절과 임명직 의원을 통한 관료체제의 의회 지배 때문에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다. 또한 태국의 정당은 1946년 최초로 만들어 졌으나 이 역시 잦은 쿠데타, 정치체제의 관료체제의 종속현상 등으로 정치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또한 여타의 정치적 압력단체인 기업가, 노동자, 농민, 학생집단 등의 역할도 미미했다. 이러한 집단들은 대부분 관료체제의 영향력하에 종속됨으로써 정치적 역할을 제한받게 되었다.

그러나 관료지배체제로 특징지을 수 있는 태국의 정치체제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진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태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교육의 확대등을 이룸으로써 군부 권위주의체제에 대한 비판과 국민들의 정치참여의식이 높아 졌으며 다원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 자각이 폭 넓게 확산되었다. 70년대후 학생, 기업가계층, 노동운동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어 갔다. 고등교육의 증대로 학생들은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핵심세력으로 성장하여 1973년 10월 14일사태를 주도했다. 경제성장에 힘입어 기업가 계층은 정당과 의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노동운동세력은 정당을 결성하지는 못했으나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그 정치적 위상을 강화시켜 나가게 되었다.

80년대를 거쳐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초관료세력(extra-bureaucratic group)들의 정치적 요구가 집단화, 조직화되면서 정당과 의회체제가 제도화의 과정을 밟아 가고 있으며 태국정치의 오랜 특징이었던 관료지배체제는 의회중심의 다원적 민주주의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이상과 같은 태국의 정치변동 과정속에서 카리스마를 갖게 되는 푸미폰 국왕은 이성적, 법적지배의 정당성이 취약한 정치체제에 정통성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정치적 안정에 기여했다.

### 1. 싸릿체제와 락타이(Lak Thai, Thai Principles)

1932년 혁명이래 실질적으로 입헌군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국왕은 푸미폰국왕이 있으며 그의 입헌군주로서의 역할은 싸릿(Sarit Thanarat)군사정권이 출범하고 난 이후 시작되었다.

1932년 혁명 후 태국 최초의 입헌군주로 추대되었던 라마 7세(1925-1935년)는 입헌군주의 권한을 놓고 혁명주도세력인 카나랏싸던과의 알력을 빚던 중 1933년 왕당파중심의 버워라뎃(Boworadet)쿠데타가 실패로 끝난 후 1934년 영국으로 망명했다. 그리고 그는 혁명정부가 귀국을 중용했을때 국왕의 특권을 제한하는 조치-사형선고에 대한 사면

권, 임명직 의원 임명권, 정치범 석방권-를 철회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35년에 퇴위했다. 라마 7세가 퇴위한 후 라마 8세가 즉위했으나 그는 즉위시 나이가 10세에 불과하여 섭정위원회(Regency Council)가 국왕의 권한을 대행했으며 이 기간 중 스위스에서 유학을 마치고 1945년이 되서야 태국에 귀국했다. 그러나 그는 귀국후인 1946년 의문의 변사사건을 당했다.

라마 8세가 사망한 후 그의 동생인 라마 9세, 푸미폰 국왕이 즉위하였으며 그는 스위스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1950년에 정식으로 대관식을 치르고 입헌군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수상인 피분은 32년 혁명을 주도하여 절대군주제를 전복시킨 카나랏싸던의 핵심인물이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국왕과 왕실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1955년 국왕이 태국의 동북부 시찰에 나섰을때 국민들의 국왕에 대한 인기가 대단하다는 사실에 위기의식을 느낀 피분은 국왕의 존재를 두려워하여 이후 국왕의 여행경비를 제공치 않았으며 국왕은 이러한 피분정권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1957년 불교행사 축하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양자간의 관계는 극히 악화되었다 (Chaleontiaan, 1983: 410-411).

한편 47년 쿠데타를 실제로 주도했던 짜릿(Sarit Thanarat)을 포함한 쿠데타 주도세력의 국왕에 대한 태도는 피분과는 상이한 것이었다. 그들은 32년 쿠데타 주도세력인 카나랏싸던과는 달리 서구식 민주주의의 경험이 없었고 국왕에 대해서 여전히 존경심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47년 쿠데타기간중 왕실과 상의했으며 32년이래 최초로 “국가, 종교, 국왕”의 수호에 대하여 언급하기도 했다. 쿠데타후 그들은 새로운 헌법에서 국왕의 공식적 권력을 일부 보장해 주었다. 그들은 1935년 라마 7세가 퇴위한 후 재무부가 관리했던 왕실부동산 관리를 국왕에게 넘겨주었으며 왕실 부동산은 이후 왕실의 큰 재산이 되었다 (Phongpaichit and Baker, 1994: 281-282).

47년 쿠데타후 짜릿은 왕실에 의해서 왕궁 수비대장(Royal Guard)의 명예직에 임명되었다. 57년 쿠데타때 짜릿은 그 사실을 국왕에게 제일 먼저 알렸으며 국왕은 그를 수도 방위 사령관에 임명했다. 짜릿은 이 직위를 공개적으로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이용했다. 58년 쿠데타후 짜릿은 다시 국왕을 방문했다. 짜릿은 국왕에 대한 확실한 충성을 맹세했으며 국왕은 짜릿의 쿠데타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Chaleontiaan, 1983: 411-412). 이후 태국에서 발생하는 쿠데타의 사전, 사후에 국왕의 승인은 쿠데타 성공의 주요한 변수가 되었다.

짜릿은 1957년 9월 26일과 1958년 10월 21일 두차례의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1958년 쿠데타후 수상직에 오름으로써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다. 짜릿의 통치는 1963년에 그가 병사함으로써 일단락되었으나 그의 사후에도 짜릿이 유지했던 정치체제는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싸릿을 중심으로 47년 쿠데타를 실제로 주도했던 세력들이 싸릿사후에도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정치군인들의 역할은 1973년 10월 14일 사태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1958년 이후 1973년까지의 태국의 정치체제는 본질적으로 싸릿체제가 지배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시기는 태국 군부통치의 핵심적인 시기였다.

싸릿이 직접통치 하게 되는 1958-63년까지의 초기 싸릿체제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말살된 시기였다. 싸릿은 쿠데타후 선거를 치르지 않고 임시헌법에 의해 통치했으며 특히 임시헌법 17조에 따라 사법권까지 자의적으로 행사했다. 또한 32년이래 도입된 의회체제는 의원 전원이 임명직의원으로 구성되는 반(半)의회체제의 형태를 띠게 되었으며 국민들의 정치참여는 완전히 봉쇄되었고 참여적인 정치제도는 전혀 개발되지 않았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완전히 말살시킨 싸릿체제는 곧 바로 정통성의 위기에 직면했다.

싸릿이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이시이(Ishii, 1986: 164-165)는 락타이(Thai Principles, Lak Thai)라고 명명했다. 락타이 이데올로기는 싸릿이후 오늘날 까지도 태국의 이상주의적인 국가질서가 되고 있다. 사실상 락타이의 개념은 싸릿에 앞서서 이미 라마 6세(1910-25년)가 언급한 바 있으며 라마 6세는 태국국기를 제정하면서 락타이의 개념을 상징화했었다. 그는 1차세계대전이 발발했을때 주권국가의 상징을 나타내는 삼색 국기를 만들고 삼색은 국가(적색), 종교(백색), 국왕(청색)을 상징하게 되었다.

이 세가지 요소중 국왕과 불교의 관계가 락타이 개념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앞장에서도 언급한 바 같이 태국의 이상적인 왕권개념인 담마라자는 불교의 교리인 법을 보호하고 준수함으로써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리에 착안하여 싸릿은 국왕이 불교의 수호자가 되는 락타이의 국가질서를 지지함으로써 정통성을 구하고자 했다. 따라서 불교와 국왕이라는 양대 전통적 가치는 싸릿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로 이용되었다.

이후 락타이의 핵심을 이루는 “국가, 종교, 국왕”이라는 세가지 요소는 국가적 이데올로기로서 정당성을 갖게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락타이는 태국의 국가질서를 정당화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다. 락타이 이데올로기는 1970년대 태국사회가 급진세력의 도전에 직면했을때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며 1980년대초 수상청 산하에 설립된 국가정체성위원회(National Identity Board)는 태국사회의 정체성의 상징으로서의 락타이의 유용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게 되었으며 국왕과 불교의 두가지 전통적인 가치가 여전히 국가의 단결을 공고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Phongpaichit and Baker, 1994: 319).

락타이를 국가적 이데올로기로 삼게 되는 싸릿은 국가의 상징으로서 국왕의 역할을

확대시켜 나갔다. 그는 국왕의 생일을 국경일로 정했으며 농경일(the First Ploughing)을 포함한 왕실행사를 부활시켰다. 이 의식은 쑤코타이이래의 행사였으나 32년이래 폐지되었다가 싸릿에 의해서 부활되었다. 또한 싸릿은 국왕과 왕비의 동북부를 포함한 지방방문을 적극 후원했다. 국왕은 지방방문을 통하여 국민들과의 접촉을 빈번히 했으며 지방방문은 앞장에서 언급한 바같이 국왕이 오늘날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국왕개발계획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지방방문을 통하여 국왕은 국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전통적으로 태국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비로운 가부장적인 왕, 그리고 담마라자로서의 이미지를 회복하게 되었다.

또한 싸릿은 국왕의 해외여행도 주선했다. 싸릿정권 5년동안 국왕은 무려 23개국을 순방했다 (Amphraiwan, 1994: 61-65). 국왕의 해외방문은 군주제라는 전통문화의 지속과 보존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뿐아니라 국가의 권위유지에도 크게 기여했다. 왕실의 행사도 빈번해 졌다. 국왕이 참여하는 의식, 행사, 알현의 횟수는 피분이 통치했던 50년대 중반 1년동안 100회에서 싸릿정권하에서는 1년동안 무려 400회에 이르렀다 (Phongpaichit and Baker, 1994: 282).

국왕과 군과의 관계도 밀접해졌다. 군 1개연대는 왕실업무를 담당토록 배속되었으며 왕비는 이 부대의 명예 연대장이 되었다. 싸릿은 국왕에게 육군사관학교 교장과 5개연대의 연대장이 되달라고 요청했다. 왕실기를 연대에 수여하는 의식은 주요행사가 되었다. 싸릿은 군대를 일컬어서 “국왕의 군대” (the army of the king)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기도 했다 (Phongpaichit and Baker, 1994: 283). 군과의 관계가 복원됨으로써 국왕은 국가방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던 선대왕들의 모습을 회복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케 되었다.

왕실역할의 확대와 함께 싸릿은 전통적인 불교가치의 부활을 통해서 락타이 이데올로기를 더욱 구체화시켜 나갔다. 그는 고대로부터 전래한 불교와 국왕사이의 의식적 관계를 부활시켰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사 전달식이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국왕은 불교의 수호자로서 전통적인 담마라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갈 수 있었다. 또한 정부는 1961년 승가법을 개정하여 승가의 중앙집중 권력을 강화시키고 왕실이 주도했던 탐마웃니카이(Thammayut sect)의 위상을 복원시켰으며 1961년부터 시작한 국가사회경제개발정책에 승가를 동원한 탐마투스(Thammathut)과 탐마짜릭(Thammajarik)계획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기도 했다 (김흥구, 1996a: 78-81)

한편 푸미폰 국왕은 싸릿정권을 옹호하는 공개적인 발언등을 통하여 그의 정치적 역할을 확대해 나갔다. 국왕은 61년 신년사에서 싸릿 정부의 사회경제개발정책과 정부의 대 라오스, 캄보디아 외교정책을 국민들이 지지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또한 국왕은 62년 동북부 지방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국왕의 일련의 정치적 역할은 싸릿체제의

정통성을 강화시켜 주었음은 물론이었다 (Bhumibol Adulayadej, 1996: 10).

국왕의 싹뚱정권 지지의 근본적 이유는 국왕과 왕실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푸미폰 국왕은 1950년 공식적 대관식을 치른 후 입헌군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했으나 피분정권의 비우호적 태도로 좌절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국왕은 탁타이 이데올로기를 지지하고 국왕과 왕실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싹뚱정권과는 이해관계가 부합하여 지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싹뚱정권때부터 시작된 국왕의 정치적 역할은 58년 후 지연되어 온 신헌법 제정압력이 있었던 68년부터 더욱 적극성을 띠었다. 이 시기는 후기 싹뚱체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전기 싹뚱체제에서 싹뚱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함으로써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었던 국왕은 후기 싹뚱체제후 변화되어 가는 정치환경에 부응하여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활발한 정치적 역할을 모색하게 되었다. 68년초 국왕은 탐마삿대학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번 해가 선거가 없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The Nation, December 5, 1987) 연설이 있는지 1년후에 태국에는 신헌법이 제정되었고 총선이 실시되었다. 국왕은 69년 3월 프라삿땃 교육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쿠데타나 혁명보다는 점진적 방법에 의한 사회발전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국왕은 71년 9월 말쭈라롱껀대학에서 대학 부정사건조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학생들이 시위를 자제하고 수상과 대화할 것을 촉구했으며 지방개발에 대한 정부의 비능률적인 행정수행능력에 대해 언급했다 (Morell and Samuttawanit, 1981: 65).

## 2. 1973년 10월 14일 사태와 개방정치(open politics)체제

태국에는 1958년이래 10년이 지난 68년에 이르러서야 신헌법이 제정되고 의회의 활동이 재개되었으며 69년 2월에는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선거후 구성된 의회내 여야의 행정부에 대한 간섭, 예산안 통과의 지연, 정부시책의 비판 등으로 의회와 행정부 간에는 커다란 마찰을 빚고 있었다.

69년 선거후 군부는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세력으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싹뚱의 후계자인 타넨, 프라팻(Praphat Charusathien), 크릿(Krit Sivara)파벌 등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또한 정당들은 과거와 달리 비교적 행정부의 통제에 효과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정치적으로 의식화된 학생들의 수가 증가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 직면하여 군부는 71년 쿠데타를 일으켜 의회 및 정당을 해산시켰으며 72년 헌법에 따라 대부분 관료로 충원된 임명의회가 구성되었다.

한편 71년 쿠데타후 타넨수상의 아들인 나롱(Narong Kittikachorn)의 후계문제는 군부내의 타파벌의 불만을 사게 되었으며 대학생들 중심으로 정치화되어 갔던 몇 개의 정치적 압력집단은 타넨, 프라팻, 나롱의 독재통치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73년초에

들어서 태국전국학생센터(NSCT, National Student Center of Thailand)는 헌법개정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헌법개정을 요구한 학생들의 구속사건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어 10월 14일 사태가 발생했다.

10월 14일 사태를 전후하여 푸미폰 국왕은 태국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영향력있는 인물로 등장했다. 타님정권 말기에 언론탄압이 극심했을때 국왕은 군부정권에 비판적 지식인들과 학생들을 대신하여 발언을 했고 외국 관측통을 빌어서 “선출의회를 가짐으로써 고대 싸암(Siam)의 전통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 (Morell and Samuttawanit, 1981: 69) 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언급을 통하여 국왕은 민주주의를 적극 옹호하게 되었으며 태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 정치체제로 간주되는 쭈코타이의 정치체제로부터 비롯된 담마라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체제에서 왕들은 국민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정의롭게 통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통치덕목이라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덕목들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정의와 자유의 가치와 일맥상통하기도 하는 것이다 (Hewison, 1997: 60 참조).

10월 14일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왕은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다. 당시 국왕은 다음과 같은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나는 모든 당사자들이 우리 국가가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모든 협조를 하고 폭력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한다. 더욱이 현재의 재앙을 치유하기 위해서 타님원수는 오늘밤 일찍 수상의 직에서 물러났다. 나는 썬야(Sanya Thammasak)를 수상에 임명했다. 모든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를 지지함으로써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정상화를 되찾고 국가와 모든 국민들을 위한 평온과 발전이 이루어 지기를 희망한다” (Bangkok Post, October 15, 1973: 3).

10월 14일사태에서 국왕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들과 정치세력들의 민주화 요구를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타님과 뿌라팻, 나룽을 망명시킴으로써 타님군사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왕은 이러한 역할을 통하여 국민들이 불만이 있을 때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의 영위를 위해 노력했던 가부장으로서 또한 법에 따라 정의롭게 통치하고자 했던 담마라자로서의 전통적인 태국 국왕의 면모를 보여 주게 되었다. 또한 국왕은 10월 14일사태 후 국민적 요구인 민주화를 추진하게 되는 취약했던 문민정권의 정통성을 지지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측근들을 수상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그후 76년까지 3년동안 태국사회의 폭발적인 정치참여, 사회의 이념적 양극화 현상, 정당정치의 혼란 등으로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이 조성되었으며 1975년 인도지나반도의 3국이 공산화되고 특히 라오스에서 600년동안이나 지속되어온 군주제가 붕괴되는 사태속에서 국왕은 왕실의 보존에 대한 우려와 국가적 위기감을 심각하게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 외적 위기상황속에서 보수세력의 중심축으로서의 국왕은 문민정권의 정통성훼손에 대해 심한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10월 14일사태에서 학생들의 시위를 지지했던 국왕이 다시 군부를 지지하게 되는 이유는 왕실의 보존이라는 그의 근본적인 정치적 이해때문 이었다. 국왕이 비록 학생들의 시위를 지지했으나 그것은 “... 태국의 전통적 기구와 가치들의 보존을 위해서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것” (Morell and Samuttawanit, 1981: 69)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국왕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정치소요보다는 법과 질서를 원했다. 비록 그가 10월 14일사태 당시 사회, 정치적 개혁에 관심을 표명한 것은 사실이라도 그가 구상하는 변화의 모델은 매우 점진적인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10월 14일사태때의 국왕의 리버럴리즘은 과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홍구, 1991: 177-178). 국왕은 75-76년기간중 발생한 정치적 소요를 학생, 노동자, 농민운동을 공산주의자가 사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입헌군주제와 국가적 안정이 위협받을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좌익세력에 의한 왕실모독사건은 국왕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되었다. 왕실모독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는 와찌라롱꼰(Vajiralongkorn) 황태자에 대한 비난이었다. 이 사건은 1976년 10월 군부쿠데타의 빌미를 제공해주게 된다. 당시에 좌익학생들은 왕자의 무능을 조롱하고 모의인형을 만들어 교수형에 처하였다.

이러한 좌익세력의 활동에 대응하여 국왕제를 옹호하고 좌익세력을 공격하는 일은 주로 군부가 소유했던 방콕 주둔 기갑부대 라디오 방송국(Armoured Radio)과 우익운동 단체들이 주도했다. 방송국장이었으며 왕비의 친척인 우탄(Uthan Sanitwong)중령은 방송을 통하여 “국가, 종교, 국왕”이라는 락타이 이데올로기를 지지하고 나섰으며 국왕의 이름은 좌익세력을 “지구의 쓰레기”, “국가의 짐”으로 비난하는데 사용되었다. 다양한 우익세력들 역시 락타이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Marks, 1994: 172).

국왕도 락타이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공산주의 반대운동에 직접 나섰다. 1975년 6월에 전 왕실가족들은 422명의 순직한 군, 경찰, 민간인들의 합동 장례식에 나타났다 (Marks, 1994: 173). 또한 국왕과 와찌라롱꼰왕자는 군부대를 빈번히 방문하고 국경지대를 시찰했다. 75년 국왕은 왕실근위대에서 행한 연설에서 태국이 적의 목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국민들은 어떤 위기상황에도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왕 탄신일에는 국민들이 내, 외부적 위협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Turton, Fast and Caldwell, eds. 1978: 87). 국왕은 1976년 우익단체인 붉은 들소(Red Gaur)훈련장을 방문하기도 했고 빌리지 스카우트(Village Scouts)를 후원하기도 했다.

76년 쿠데타에 즈음하여 이루어진 타넵과 뿌라팻의 귀국은 국왕의 묵인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Morell and Samuttawanit, 1981: 270). 타넵의 귀국은 국왕의 전폭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졌는데 귀국 후 과거에 국왕이 수도생활을 했던 버워니웻(Borwoniwet) 사원에 거주했다. 국왕은 왕자와 함께 공개적으로 그 사원을 방문했으며 사원은 우익단

체인 빌리지스카우트에 의해 보호받았다. 결국 타님의 귀국에 대한 국왕의 승인은 구 군사독재자와 우익운동에 정당성을 부여케 되었다.

1976년 쿠데타후 국왕은 국왕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대법관 타닌(Thanin Kraivichien)을 수상에 임명하고 신년사에서 10월 6일의 쿠데타를 국민이 원했던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쿠데타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다 (Turton, Fast and Caldwell eds. 1978: 91). 1976년 10월 쿠데타로 국가행정개혁위원회(NARC, National Administration Reform Council)가 집권했을때 국왕의 이름으로 집권했으며 위원회의 최초 일성은 “국왕이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국왕은 라디오방송을 통하여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들의 단합을 호소했다. 또한 국가행정개혁위원회는 29개의 새로운 헌법조항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중 절반이상이 국왕의 지위에 관련된 것이었으며 19조에는 국왕이 직접 이 법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이 만들어짐으로써 국왕의 권력을 증대시켰다 (Marks, 1994: 174).

한편 76년 쿠데타후 집권한 타닌정권은 강력한 반공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정치적 반대세력에게 지나치게 억압적이었다. 이에 따라 왕실에 대한 좌익주의자들의 비난도 점차 노골화되어 갔다. 그들은 76년 쿠데타에 왕실이 개입되었다고 비난했으며 특히 1977년 끄리양삭(Kriangsak Chamanan)쿠데타후 태국공산주의자(CPT, Communist Party of Thailand)들은 국왕과 군부정권간의 갈등을 부추키면서 국왕을 비난했다.

1977년 끄리양삭이 국왕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채 국왕의 신임을 받던 타닌정권을 붕괴시키자 국왕은 쿠데타후 개최되었던 왕실의식에 전통 왕실의상 대신에 평상복을 착용하고 나타남으로써 그의 분노를 표시했다. 그리고 국왕은 군부의 불신을 받고 물러난 타닌을 1977년 12월 16일에 추밀원의원에 임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1978년 1월 8일 태국 인민의 소리방송(VOPT, Voice of the People of Thailand)은 77년 10월 쿠데타는 왕실을 중심으로하는 봉건세력들은 분노케하여 지방순찰시에 항상 군복을 입었던 국왕이 쿠데타후에는 평상복을 착용하고 헌법에 서명을 지연시킨채 푸판(Bhupan) 왕궁에 잠시 머물렀다고 선전했다 (Marks, 1994: 185).

### 3. 1980년대 이후 태국의 민주화

1977년 10월 쿠데타로 탄생한 끄리양삭의 새정권은 타닌정권기간중 반체제인사들에 대해서 보다 온건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1978년에는 새로운 헌법을 공포했다. 78년의 헌법은 80년대 이후 태국 정치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몇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새 헌법은 무소속의 하원의원 출마금지조항을 비롯하여 기타 정당체제를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78년 헌법 94조, 95조, 103조) 임명직 상원의 권한을 약화시킴으로써 선출직 하원주도의 의회운용을 제도화시켜 참여적 민주주의 확대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이후 4년동안 그 효력이 유보되었다.

한편 끄리양삭은 1979년 총선을 실시하여 재차 수상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79년말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뒤이은 중공의 베트남침공에 고무된 태국공산주의자들의 준동과 국제적 유가파동으로 인한 국내경제의 위기등에 직면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끄리양삭의 정권을 지지했던 군부내 실세그룹인 육사 7기인 영터크스(Young Turks)가 지지를 철회하자 1980년 2월에 사임하기에 이른다. 그가 사임한 후 육군사령관 겸 국방장관인 프렘(Prem Tinsulanond)이 수상의 직에 올랐다.

프렘은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수상의 직을 유지하면서 80년대 이후 태국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1980년 4월 프렘정권이 들어선 이래 태국은 정치적으로 그 어느때보다 안정되 가고 있었다.

1981년 7월 1일 프렘은 새로운 정당법을 제정하여 군소정당을 도태시키고 대정당을 육성시키며 무소속 입후보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정당법을 크게 강화시켰다. 또한 1978년 헌법의 정당과 의회에 관한 유보조항이 만료가 되는 83년에 군부주도의 헌법개정기도도 불발에 그치게 되었고 81, 85년 두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했으나 실패에 그쳤으며 다섯 차례의 내각개편과 세 차례의 의회해산을 통하여 프렘정권은 8년동안 문민통치와 민주화의 기반을 다져갔다. 또 이 기간중에는 3차례의 선거가 치러지고 의회의 활동이 활성화되는 시기였으며 오랜 기간동안 태국정치를 특징지었던 군부주도의 관료체제는 의회중심의 다원적 민주주의체제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프렘정권은 태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1987년 태국의 경제성장률은 7%로서 한국, 대만과 함께 아시아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이러한 프렘정권의 경제적 성공이 발판이 되어 이후의 찻차이정권의 1988-90년기간중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0%이상을 기록했다. 또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상대적 자율성이 증가되었으며 도시중산층이 급속하게 팽창되었다. 방콕의 경우 1960년에 178,000명에 불과했던 중산층이 70년에는 284,000명, 그리고 86년에는 도시인구의 31%인 1,800,000명으로 증가했다 (Sukhumbhand, Sept. 1993: 884)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부응하여 국왕은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착실히 이룩해 가고 있는 프렘정부의 취약한 정통성을 지지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도 국왕의 이러한 역할은 지속되고 있다. 국왕은 이 기간중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국민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정의롭게 통치하는 담마라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길이라고 인식했던 것이다. 이 장에서는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 발생했던 몇가지 주요한 정치적 사건에서 나타난 국왕의 정치적 역할의 실례를 살펴 보기로 한다.

#### 1) 1981년 쿠데타

1981년 쿠데타는 육사 7기생인 영터크스(Young Turks, 1960년 졸업)주도로 발생했

다. 이 파벌은 70년대 초부터 군부내의 파벌주의 청산을 표방하고 탄생한 군부내 소장파 장교그룹인데 77년 쿠데타에 참여해 끄리양씩정권 탄생에 기여했고 그후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쁘렘을 지지했다. 쁘렘은 대표적인 국왕제의 신봉자로서 국왕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이었다. “그는 국왕제에 대하여 확고한 충성심을 보였다 ...그는 국왕제를 옹호하고 그것에 대한 경외심을 보임으로써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었다” (Hewison, 1997: 70). 뿐만아니라 쁘렘내각의 각료들도 많은 시간을 왕실행사에 할애하게 되었다 (Hewison, 1997: 73). 이러한 이유로 국왕과 쁘렘정권간의 관계는 아주 밀접했으며 영터크스가 쁘렘의 의사에 반하여 1981년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국왕은 국왕제의 신봉자였던 쁘렘을 지지하게 되었다.

영터크스는 쁘렘내각의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파벌투쟁, 신임각료임명건 등을 이유로 1981년 4월 1일에 쿠데타를 일으켰다. 80년 3월에 구성된 쁘렘의 1차내각은 연립내각내의 주요세력인 깃상콤당(Kit Sangkhom Party)과 찻타이당(Chart Thai Party)간의 경제적 이해-외국으로부터 설탕과 원유구매-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퇴하고 81년 3월 새로운 연립내각을 구성케 되었으나 새로 참여한 정치인중 국민들의 신망을 얻지 못하는 인사가 포함되었으며 이들 중 한명이 쑤싸이(Sudsai Hasdin)였다. 그는 1976년 쿠데타당시 탐마삿(Thammasat)대학을 공격했던 극우단체인 붉은 들소를 만들었던 인물이었으며 영터크스는 이 사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1981년 3.31일밤에 마눈(Manoon Roopkachorn)을 중심으로 하는 5명의 영터크스 대령들은 쁘렘에게 의회의 해산을 제안했으나 쁘렘은 반대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그는 국왕과 더불어 코랏(Korat)으로 피신했다. 81년 쿠데타는 육군 부사령관인 썬장군(Sant Chitpatima)을 쿠데타의 지도자로 삼아 1군 사령관이었던 와썬(Wasin Issalangkun) 중장의 지지를 얻어 냈으며 주로 1군을 동원하여 4월 1일 아침에는 방콕 전역을 장악했다. 태국의 1군은 수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주요 부대로서 과거 쿠데타에서 1군은 항상 주도적 역할을 했다. 따라서 방콕주둔 육군부대 사령관의 정권에 대한 충성과 지지는 정국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였다. 앞에서 언급한 쑤릿, 타넘, 쁘라팻 등이 1군의 주요직책을 항상 장악하고 있었던 사실은 1군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당시 영터크스는 1군휘하 3개 연대중 2개 연대의 연대장을 맡고 있었다 (Samutthawanit, 1982: 46).

한편 쿠데타후 쿠데타를 성공시키기엔 충분한 무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군부는 국왕의 행적을 쫓는데 소홀했다. 국왕의 존재는 이후 쿠데타를 실패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었다. 국왕의 도움으로 쁘렘은 공군과 2, 3, 4군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국왕이 코랏에 있다는 사실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알려졌을 때 다른 군·민지도자들은 쁘렘측에 합류했으며 국왕의 지지로 쁘렘정부는 정통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81년 쿠데타와 관련한 국왕의 역할을 비유하여 태국의 한 정치학자는 “1사단을 장악하는 자는 방콕을 장악하며 방콕을 장악하는 자는 태국을 장악했다. 그러나 지금은 국왕

과 함께 있는 자는 방콕을 장악하지 못해도 쿠데타의 승리자로 등장한다” 고 주장했다 (Scalapino, Sato and Wanandi, 1986: 166).

## 2) 1984년의 바트화 평가절하와 1985년 쿠데타

1981년 쿠데타가 불발로 그친 후 영터크스는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군부내 새로운 실력자로 등장한 인물은 아딧(Arthit Kamlang-ek)이었다. 그는 쿠데타당시 코랏(Korat)소재 2군 사령부 부사령관으로서 왕실가족과 뽀렘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후 그는 1군 사령관, 육군부사령관을 거쳐 승승장구하면서 82년 육군사령관, 83년에는 최고 사령관직을 겸직함으로써 군내의 최고 실력자가 되었을 뿐아니라 차기 수상후보로 부상되면서 뽀렘수상과는 정치적 라이벌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양자간의 갈등은 84년 뽀렘정부의 바트화 평가절하정책에 대해 아딧이 반대함으로써 고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국왕의 중재로 해소될 수 있었다. 국왕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양자간의 타협을 중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치적 의미를 갖는 우화를 설명한 적이 있다. “시간을 멈추도록 하는 시도와 같이 이번 문제를 멈추도록 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태양의 바퀴를 멈추도록 시도했던 원숭이 왕(Hanuman)의 전설과 같다. 이 일을 했던 하누만은 태양열에 의해 몸이 타게 되었다. 다행히도 하누만은 다이아몬드 머리칼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태어났다. 하누만은 태양신에게 라마야나(Ramayana)가 타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태양신에게 속도를 늦추어 줄 것을 간청했다. 따라서 태양신은 속도를 줄이고 우회하는 코스를 택했다. 라마야나는 살아났다. 이것을 본인이 언급하는 이유는 시간과 어떤 중요한 사실은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원칙에 대한 인식이다. 본인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되야될 일은 상처를 야기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Hong, 1985: 328).

81년 쿠데타에 이어서 이 사건에서도 국왕은 국왕제의 신봉자였던 뽀렘정부의 정통성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바트화 평가절하사건 이후에도 뽀렘과 아딧을 중심으로 하는 군부사이에는 끊임없는 정치적 갈등관계가 지속되던중 1985년 9월 9일 쿠데타가 발생했다. 85년 쿠데타는 81년 쿠데타의 주도자인 마눈, 전직 수상 끄리양썩, 전 최고사령관 썸(Serm na Nakhon), 전 육군 부사령관 욏(Yot Thephasdin), 전 최고 부사령관 끄라쎄(Krasae Intharathat) 등이 주도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으며 주동자와 발생동기마저 불분명한 사건이었다. 81년 쿠데타와는 달리 85년 쿠데타는 쿠데타 성공의 요건인 충분한 무력의 확보에 실패했을 뿐아니라 군부내에 전혀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했던 전직 군장성들이 주축이 되었다. 쿠데타의 동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는데 영터크스파벌을 붕괴시키기위하여 쿠데타에 끌어 들였다는 음모설과 더불어 뽀렘수상을 축출시키기위한 목적을 갖았다고도 알려지고 있다 (Phongpaichit and Baker, 1995: 327).

한편 쿠데타당시 국왕과 왕비는 태국의 남부지방에 거주했고 황태자는 이태리, 싹렘 수상은 인도네시아, 육군사령관 겸 최고사령관인 아딧은 스웨덴에 머물고 있었다. 아딧은 즉각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서 진압명령을 내렸다. 당시에 아세안(ASEAN) 정상회담준비를 위하여 자카르타에 머물고 있었던 싹렘은 귀로에 국왕과 왕비를 만남으로써 이 사건과 관련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리라고 짐작된다. 이 사건발생후 아딧은 86년 5월에 육군사령관직에서 물러났으며 1987년 국왕의 환갑을 맞아 대대적인 사면이 행해졌을때 쿠데타에 관련된 40명의 피고인중 33명이 석방되었다 (Sinsawat, 1996: 174-175). 석방의 명분은 국왕의 환갑을 맞이하여 국민화합을 위한다는 것이었다. 국왕의 사면조치는 국민화합에 이바지했을 뿐아니라 싹렘정부의 안정성을 높이기 하는 사건이었다.

### 3) 1991년 쿠데타와 1992년 5월사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싹렘정권은 수 차례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으나 80년대 이후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정의롭게 통치하는 담마라자의 역할을 하고자 했던 국왕으로부터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정당과 의회체제는 단절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또한 싹렘정권은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한편 국왕은 충성스런 국왕제의 신봉자인 싹렘정부를 지지함으로써 왕실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었으며 1986년에는 입헌군주로서는 최초로 대왕(Maharaj)으로 추대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민선하원의원으로 선출되지 않은 수상임명반대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88년 4월 야당의 전대각 불신임안 제출과 여당인 민주당내 비주류그룹의 개각요구와 저작권법 반대에 직면해 싹렘은 의회를 해산하게 되었다.

의회해산후 7월 24일 실시된 총선에서 찻타이당(Chat Thai)이 제 1당이 되고 민선하원의원인 찻차이(Chat Chai Choonhavan)가 수상에 임명되었다. 당시 태국헌법의 수상임명조항은 수상이 반드시 정당소속일 필요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하원의원인 찻차이의 수상직 임명은 분명히 태국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발전에 진일보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정권의 기반을 주로 기업을 출신이 다수를 이루는 찻타이당을 비롯한 정당에 둔 찻차이 정권은 취임후 필연적으로 군부와 갈등을 빚게 되었다.

특히 육군사령관과 최고 사령관을 역임했고 군부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퇴임후 부수상직에 있었던 차와릿(Chavalit Yongchaiyut)이 찰름(Chalerm Yoobamrung)수상청장관이 제기한 부정부패 스캔들로 사임하자 찻차이정권과 군부와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이후 쑨턴(Sunthon Kongsomphong) 최고사령관의 정부 이동방송차 압수사건을 통해 찻차이와 군부와의 긴장이 고조되던중 찻차이가 군부 실세 육사 5기와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81, 85년 불발쿠데타의 주역인 마눈을 군사보좌관에 임명하고 아딧장군<sup>7)</sup>을 부수상겸 국

7) 아딧은 81년 쿠데타를 진압함으로써 영터크스와는 불편한 관계에 있었으나 84년 자신의 정

방차관에 임명해 숙군을 단행하려 하자 군부는 91년 2월 23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김홍구 1996b: 37-38, 150-152).

쿠데타 발생후 쑤찐다(Suchinda Kraprayoon)장군은 관례에 따라 국왕을 알현했으며 이 자리에서 국왕은 “국민들을 실망시키지말 것”을 당부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FEER, March 7, 1991: 17). 그러나 당시의 국왕의 반응은 쿠데타를 지지하는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국왕은 “찰차이정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상실했으며 국가사태의 통제능력을 상실했다” (Kulick and Wilson, 1996: 2)는 주도세력들의 주장에 동조하면서도 왕실칙령(royal decree)에 이름의 첫머리 글자만을 가서명했다. 더욱이 국왕은 쿠데타후 영국에 망명중이던 찰차이 전 수상에게 훈장을 수여하기까지 했다. 훈장을 받기 위해서 찰차이는 귀국토록 허용을 받았다. 그리고 “주도세력들은 .....쿠데타 후 영국으로 망명했던 찰차이가 돌아오자 찰차이의 집을 방문해서 연장자에게 후배가 하는 전통적 방식대로 찰차이의 손에 성수(聖水)를 부어주어 예를 표시해야 했다” (Kulick and Wilson, 1996: 3).

그러나 국왕이 쿠데타를 승인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쿠데타를 승인하게 된 중요한 이유중 하나는 왕실의 안전에 대한 국왕의 우려였다고 볼 수 있다. 91년 쿠데타는 육, 해, 공군뿐만아니라 경찰까지 모두 가세했다. 따라서 국왕은 쿠데타를 승인하지 않을 때 닥쳐올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Kulick and Wilson, 1996:2).

한편 쿠데타후 정치불개입의사를 국민에게 밝혔던 쑤찐다는 민주적 헌법으로의 개정-수상의 자격을 선출직 의원에 한정토록하는 조항-을 방해하고 친군부정당인 싸막키당(Samakkhitham)창당에 깊숙히 개입함으로써 국왕에 의해 임명된 과도내각의 아난(Anad Panyarachoon)수상과 마찰을 빚게 되었다. 그리고 1992년 3월 총선후 마침내 쑤찐다는 친군부여당인 싸막키당의 지지를 받아 92년 4월 8일 정치불개입의사를 철회하고 수상직에 취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국왕의 희망을 저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쑤찐다의 정치불개입의사의 반복과 수상직 취임은 커다란 정치적 저항을 받게 되었다. 이에 반대하는 전직 방콕시장 째렁(Chamlong Srimuang)의 단식투쟁은 대규모 반정부시위를 촉발시켰으며 야당을 포함한 반정부세력은 쑤찐다의 사임과 의회해산, 선출직의원의 수상임명을 보장하는 헌법개정을 요구했다. 째렁주도의 시위는 소위 5월 사태(1992 5.17-20)라고 일컫게 되었는데 대규모 반정부시위에는 중산층이 대거 참여했다. 이 사태는 5월 20일 국왕이 째렁과 쑤찐다를 왕궁으로 소환하여 타협할 것을 종용함으로써 일단락되었으며 쑤찐다는 5월 24일 수상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국왕은 쑤찐다와 반대입장에 있었던 째렁과 국왕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전직 수상이며 추밀원위원인 프렘이 배석하고 전국민이 시청하고 있는 TV 연설에서 쑤찐다를 다음

---

년연장에 영터크스가 찬성함으로써 관계를 개선했으며 이 사건으로 영터크스와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육사 5기와는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다.

과 같이 노골적으로 꾸짖었다. “그대는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대는 민주주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국가를 망쳤다” (Kulick and Wilson, 1996: 21). 국왕은 왕실의 보존을 위하여 1991년 쿠데타를 승인했으나 대규모 중산층의 민주화요구에 부응하여 5월사태에서는 다시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지지함으로써 국민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법에 따라 정의롭게 통치하고자 했던 담마라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

5월 사태 후 국왕은 과도정부의 구성에 개입했다. 여전히 의회내 다수석을 유지하면서 친군부 정당의 중심역할을 했던 차타이당은 당수인 쏘분(Somboon Rahong)을 수상에 지명코자 했으나 국왕은 자신의 측근이며 추밀원 위원인 전직 수상 쁘렘을 통하여 쏘분의 수상지명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아난을 수상에 임명함으로써 아난 문민정부에 정통성을 부여했다.

## V. 맺음말

푸미폰 국왕의 정치적 역할은 32년혁명후 절대군주제의 전통적 정치체제가 붕괴되고 도입된 입헌군주제의 이성적, 법적 정통성이 취약한 정치적 환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가 본격적으로 정치적 역할을 시작했던 시기는 싸릿정권 때부터였다. 싸릿은 군사정권의 취약한 정통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국왕, 종교(불교), 국가” 라는 3가지 개념으로 구성된 락타이 이데올로기를 지지하게 되었으며 국왕은 싸릿정권에게 정통성을 부여했다. 이후 국왕은 태국이 군부주도의 관료체제에서 벗어나 다원적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과정속에서 점진적인 정치발전 모델을 추구해 가는 의회 민주주의의 취약한 정통성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왕의 정치적 역할은 군사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의회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지지하기도 하는 모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왕의 모순된 정치적 역할은 왕실의 보존과 위상의 강화,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정의롭게 법에 따라 통치하는 담마라자가 되고자 하는 바람등의 두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푸미폰국왕이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전제조건은 카리스마적 자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이러한 자질과 함께 정치적 환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왕의 정치적 역할을 가능케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푸미폰 국왕의 카리스마적인 자질 요인은 법의 실행능력과 위기관리 능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담마라자가 되기 위한 법의 충실한 실행노력은 푸미폰 국왕의 카리스마 제고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푸미폰국왕의 카리스마는 락타이 이데올로기와 국왕개발계획을 통하여 일상화되었다

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락타이 이데올로기와 국왕개발계획은 카리스마의 일상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태국에는 락타이를 대체할 국가적 이데올로기가 부재하며 국왕은 국민들에게 국왕개발계획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입헌군주제의 실용성을 입증해 보임으로써 소위 추종자에 대한 보상에 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국왕개발계획의 성공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하고 있는 것은 푸미폰 국왕이 갖는 재정적 능력이다. 푸미폰 국왕은 싸암 상업은행(Siam Commercial Bank)과 현재 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싸암 시멘트회사(Siam Cement Company)를 소유하고 있다. 이 두개의 기업은 복합기업으로서 왕실재산국(Crown Properties Bureau)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왕실재산국은 태국 제 2위의 자산가이며 4위의 투자가이다 (Kulick and Wilson, 1996: 50). 따라서 국왕이 갖고 있는 재정적 능력은 국왕개발계획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푸미폰국왕의 카리스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도 일상화되고 있다. 태국헌법 6조는 국왕은 기존의 존재이며 누구도 국왕의 지위를 침해할 수 없으며 국왕을 비난하거나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태국형법 112조는 국왕, 왕비, 그의 상속자나 섭정을 비방, 모욕하거나 위협하는자는 3년에서 15년까지 형벌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Tha Kruaimai Na Ayuthya, 1992: 78-81).

뿐만 아니라 푸미폰 국왕의 카리스마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강화되고 있다. 군과 정부 홍보국이 소유하고 있는 TV방송국들은 왕실의 역할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군방송인 채널 7번은 1979년경부터 태국의 전지역에 전송되고 있다. 1980년대중반 TV는 도시세대의 90%가 소유했고 1980년대말까지 농촌인구의 70%가 소유하게 되었다. TV프로그램은 제일 먼저 국왕과 왕실활동을 방영하고 수상, 군사령관 및 다른 주요 정치, 군사적 중요인물의 활동을 방영함으로써 태국사회의 권위주의의 계서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Phongpaichit and Baker, 1994: 315-316).

한편 푸미폰 국왕의 카리스마 유지에 부정적 요인이 될 첫번째 요인은 입헌군주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들 수 있다. 태국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법적인 규제요인으로 인하여 공개적으로 입헌군주제를 반대하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태국의 민주화가 정치적 가치와 구조의 세속화와 분권화를 계속해서 지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국왕의 절대적 권위가 오히려 민주화의 장기적인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윤진표, 1994: 73-74). 그렇지만 국가적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락타이의 이데올로기가 유용한 한 국왕의 카리스마와 입헌군주제에 대한 급격한 반대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요인은 입헌군주제에 대한 도전세력의 존재이다. 지금까지 입헌군주제에 대한 가장 큰 도전세력은 태국공산당이였다. 그들은 70년대 중반이후 국왕제의 폐지까지

주장한 적이 있으나 전혀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더욱이 현재 태국에는 공산당세력이 거의 붕괴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초 정부의 대대적인 공산주의자 소탕운동이 전개되고 수상령 66/23정책이 실효를 거둬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은 세력을 급속히 잃어 가던중 1983년 중반 국내안보 작전사령부(ISOC, Internal Security Operations Command)는 태국공산당에 대한 전면적 승리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1990년경 경찰은 태국공산당 정치국원 3명이 생존해 있으며 1명만 태국에 남아 있다고 발표했다 (Phongpaichit and Baker, 1994: 313).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력은 무시해도 좋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현재의 푸미폰 국왕의 카리스마는 지속될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 정당과 의회중심의 정치체제가 더욱 제도화됨으로써 이성적, 법적지배의 정당성이 강화될 수록 국왕의 정치적 역할의 효용성은 감소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군부 주도의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의 흔적이 단기간내에 불식되기 어렵다는 점과 민주화 발전에 저항하는 기득권세력의 반발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치적 중재자로서의 국왕의 역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푸미폰 국왕의 승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한다. 현재 태국에는 후계자격을 갖춘 왕자와 공주가 각각 1명씩 있다. 푸미폰 국왕은 1972년 장남인 와짜라롱꼰 왕자를 황태자로 책봉했으며 차녀인 씨린턴(Sirindhorn)공주도 1976년 왕위계승권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두 명중 누가 후계자가 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 와짜라롱꼰황태자는 이혼의 전력이 있는 등 사생활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 반면에 씨린턴공주는 그의 아버지와 같이 국민에 대해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행사를 주관하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벌임으로써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내외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Kulick and Wilson, 1996: 56).

그러나 앞으로 누가 후계자가 되든지간에 세습적 승계에 의해 획득한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카리스마를 갖는 문제는 순전히 후계자의 개인적 자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차기 태국입헌군주의 카리스마는 역대 태국의 국왕들이 갖았던 카리스마적 자질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는 세습에 성공할 수 있으나 그 후계자가 그와 같은 카리스마적 자질을 갖지 못한다면 후계자는 복종자들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적 권리에 의한 권위만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홍구. 1991. 「태국 왕권의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 태국학회 논총』 4호.
- \_\_\_\_\_. 1996(a). 「태국불교와 정치적 정통성」. 『동남아시아연구』 4호.
- \_\_\_\_\_. 1996(b). 『태국군과 정치』 서울: 전예원.
- 윤진표. 1994. 「태국의 정치변동과 민주화의 과제」. 『동남아의 정치변동』 서울: 서울 프레스.
- Adulayadej, Bhumibol. 1966. "Phraraachadamrat Phraraach-ataan Kae Prachachon-thai Nai Okaat Wan-kheun-pii-mai 2504." *Nai Phraraachadamrat Lae Phraboromrachaowatt Kheong Phrabaatsomdetphracaoyuhua Bhumiphon Adulayadej Lae Somdejphranaangcao Sirikit Phraboromraachini*(1961년 왕과 왕비신년사). Bangkok: Longphim Bandaansaot.
- Amphraiwan, Waari. 1994. *Pharabaatsomdejphracaoyohua Bhimibol Adulayadej... Nailuang Khong Rao*(우리들의 푸미폰 국왕). Bangkok: Samnakphim Phaktin.
- Chaleomtiaan, Thak 1983. *Kaan-muang Rabop Phaw-khun Upatham Baep Phadetkaan* (후원독재체제정치). Bangkok: Samnak-phim Mahaawitthayaalai Thammasaat.
- Eisenstadt, S. N(ed.). 1968. *Max Weber on Charisma and Institution Building*.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rch 7: 17(1991).
- Girling, L. S. 1981. *Thailand:Society and Politic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 Press.
- Girth, H. H and Mills, C. Wright(eds.). 1947.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London: Routledge.
- Hewison, Kevin(ed.). 1997. *Political Change in Thailand: democracy and participation*. London: Routledge.
- Hong, Lisa. 1985. "Thailand in 1984: Towards a Political Modus Vivendi." *Souteast Asian Affairs 1985*. Singapore: Institute of Souteast Asian Studies.
- Ishii, Yoneo. 1986. *Sangha, State and Society: Thai Buddhism in History*. Honolulu: The University of Hawaii Press.
- Kulick, Elliott and Wilson, Dick. 1986. *Time for Thailand: Profile of a New Success*. Bangkok: White Lotus.
- Landon, Kenneth Perry. 1968. *Siam in Transition:A Brief Survey of Cultural Trends in the Five Years Since the Revolution of 1932*. New York: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 Marks, Tom. 1994. *Making Revolution: The Insurgency of the Communist Party of Thailand in Structural Perspective*. Bangkok: White Lotus.
- Morell, David and Samuttawanit, Chai-anan. 1981. *Political Conflict in Thailand*. Cambridge, Mass.: Oelgeschlager, Gunn and Hain, Publishers.

- Norman, Birnbaum & Gertrud, Lenzer. 1969. *Sociology and Religion*.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Nuecterlein, Donald E. 1965. *Thailand and the Struggle for Southeast Asia*.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Phongpaichit, Pasuk and Baker, Chris. 1994. *Thailand: Economy and Politics*. Oxford: Oxford Univ. Press.
- Riggs, Fred W. 1966. *The Modernization of a Bureaucratic Polity*. Honolulu: East-West Center Press.
- Rodhetbhai, Chaman. 1990. "Role of Monarchy in Thai Political and Social Development with Special Reference to King Bhumibol Adulyadej." Ph.D Dissertation, Jawaharlal, Nehru University.
- Sukhumbhand, Paribatra. "State and Society in Thailand: How Fragile the Democracy?," *Asian Survey*, vol. 33, no. 9(September 1993).
- Rustow, Dankwart A. 1967. *A World of Nations: Problems of Political Modernization*.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 Samutthawanit, Chai-anan. 1982. *The Thai Young Turk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Scalapino, Robert A., Sato, Seizanuro and Wanandi, Jusuf. 1986. *Asian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Berkley, California: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 Sinsawat, Narong. 1996. *Kaan-muang Thai: Kaan-wikhrochungchitawithya* (심리학적 측면에서 본 태국 정치). Bangkok: Duang Kamol.
- Sricharatchanya, Paisal. 1986. "The Committee for the Coordination of Royally Initiated Project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anuary 1986.
- Streckfuss, David. 1996. *Modern Thai Monarchy and Cultural Politics*. Bangkok: Ruan Kaew Printing House.
- Srihong, Phayao(ed.). 1988. *Yensiraphrephaboribaan* (국왕의 은혜). Bangkok: rongphim-careontham.
- Syamananda, Rong. 1973. *A History of Thailand*. Bangkok: Thai Watana Panich Co., Ltd.
- Tambiah, S. J. 1976. *World Conqueror and World Renounc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a Kruaimai Na Ayuthya. 1993. *Thosaphitharaachatham*(시법). Bangkok: Tonoo.
- Turton, Andrew, Jonathan Fast and Caldwell, Malcolm(eds.). 1978. *Thailand: Roots of Conflict*. Nottingham: Spokesman.
- Thailand Business*, vol. 11. no. 9-10, July-August: 27-40(1988).
- Tullis, F. Lamond. 1973. *Politics and Social Change in Third World Countries*. New

-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 Wales, H. G. Quaritch. 1965. *Ancient Siamese Government and Administration*. New York: Paragon.
- Xuto, Somsakdi. 1987. *Government and Politics of Thail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A STUDY ON THE THAI KING'S CHARISMA AND POLITICAL ROLE UNDER THE MODERN CONSTITUTIONAL MONARCHY

HONG KOO KIM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the modern constitutional monarchy, King is a merely national symbol without political power. As examples, we can consider the Queen and the Emperor in England and Japan respectively. But the present monarch in Thailand, King Bhumibol Adulyadej has political roles in his kingdom. We analyze reasons why his political role is possible in the Thai modern constitutional monarchy.

Actually we analyze two factors which are related to his personal character and secondly, political domestic situation. The first one is his charismatic character. His charismatic character includes a capability to be Dhammaraja for the welfare of the governed and make them believe that he can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But the charismatic character does not provide the necessary condition for his political role.

As the second factor, we can consider Thai political situation. This situational factor includes a decrease in the legitimacy of old traditional patterns of authority and the existence of relatively underdeveloped rational-legal political institutions. Since 1932 coup shifting absolute monarchism to constitutional monarchism, Thai participatory political institutions such as political parties and parliaments have not been institutionaliz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King has taken political roles as a legitimizer strengthening the weak polity.

Moreover, Thai Principles(king, nation, religion) and Royal Development Projects made the routinization of his charisma. As far as Thai Principles and Royal Development Projects are available, his charisma will continue but his political role will be reduced according to the rational-legal political institutions development.